완도·여수 1만여 가구 정전

오늘까지 100㎜ 폭우…강풍·해일 추가 피해 우려

주암댐·장성댐·섬진강댐 방류

제11호 태풍 '나리'가 16일 오후 6시 15분 고흥반도에 상륙하면서 완도와 여수 1만 1천여 가구가 정전됐다. 완도군 금일·금당면은 정전에다가 전화까지 불통, 고립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나리'는 17일 오전 중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나 최고 100㎜의 폭우가 더 내릴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해일 주의보가 발효된 여수 등지 연안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며, 초속 23m의 강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의 쓰러짐과 낙과 피해도 예상된다.

◇발 묶인 하늘과 바닷길=태풍경보 속 전남 서남해안은 파도가 3~8m로 높게 일어 목포·완도·여수에서 출항하는 51개 항로 71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운항 중단은 18일 오후에나 풀릴 것으로 보여 섬 주민 등 1만2천여 명(완도 3천500명·여수 2천200명·목포 6천 명)의 발길이 묶였다.

전남 연안에 있는 어선 3만5천286척 가운데 0.5t 이하 작은 배 872척은 육지로 올려졌다. 2만8천12척은 항내에 결박했고, 나머지 5천947척은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광주공항은 기상이 악화되자 16일 여객기 운항을 모두 중단했다. 오전 9시55분 제주~광주 아시아나항공 '8142'편을 시작으로 오후 8시 광주~서울 대한항공 '1310'편 등 18편 모두가 결항됐다.

◇위험수위 넘어 댐 방류=전북 임실군 강진면 섬진강다목적댐관리소는 댐 수위가 193m로 불어나 위험수위(197m)에 다다르자 지난 15일 밤 11시부터 수문 15개를 모두 열어 초당 33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주암댐도 수위가 만수위인 108.5m에 근접하자 15일 오전 7시부터 초당 70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장성댐도 위험수위(85.5m)를 넘진 않았지만 폭우에 대비해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초당 70t을 흘려 보내고 있다.

16일 오후 4시 현재 영산강 나주지점 수심은 3m로 홍수주의보(7m)가 발령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고 수심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광주·전남 관공서 비상근무=광주시는 16일부터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를 기존 1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각 구청에서는 태풍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동구 소태천 ▲서구 서창동 벽진천 ▲남구 방림동 산 101번지 ▲북구 동림3지구 ▲광산구 동곡동 마곡마을 등 10곳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하천·둑 등 8천900개의 침수 위험 지구를 정하고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여수시 연등천 ▲순천시 해룡면 노원지구 등 43곳을 인명피해 위험 지역으로 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한편 전남도 농업기술원 측은 "태풍이 지나간 뒤 각종 병충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속하게 혹명나방·이삭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 등 해충 방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물에 잠긴 벼는 잎의 끝만이라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 주고, 새 물로 갈아줘 뿌리의 활력을 높여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태풍에 배 우수수… 16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과수원에서 한 농민이 태풍 '나리'가 몰고온 강풍에 떨어진 배를 주워담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엔 폭우와 함께 초속 23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추석을 앞두고 출하 예정인 과일들의 낙과(落果) 피해가 잇따랐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2명 사망·2명 실종

철도 유실·침수 잇따라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의 철도와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주말인 15일부터 완도 428㎜·보성 236.5㎜ 등 장대비가 연이틀 쏟아지면서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일봉천'이 범람, 200m가량의 제방이 무너지는 등 전남지역에서는 7천400m의 하천 제방과 구조물이 유실됐다.

또 ▲보성 325ha ▲고흥 160ha ▲곡성 51.4ha ▲화순 43.6ha ▲구례 42ha 등 622ha의 농작물이 비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16일 오후 4시께 긴급 피항하던 목포선적 안강망 어선 7.93t급 '627 대운호'(선장 김공필·61)가 해남군 불무기도 동쪽 2.6㎞ 해상에서 높은 파도로 침몰,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최모(여·65)씨 집이 붕괴돼 최씨가 숨졌다.

앞서 15일 오전 7시35분께 보성군 노동면 학동리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철로를 덮쳤고, 보성읍 옥평리와 미력면 초당리 철로 10~20m가 유실돼 순천~광주 간 경전선 운행이 6시간 이상 통제됐다.

이날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교 하부도로가 침수돼 소통이 전면 통제됐으며, 화순군 이서면 보월리 강모(59)씨의 집이 반파되는 등 주택 38채(1천200㎡)가 침수되고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례군 문척면 계곡과 광주시 동구 광주대교 아래에서는 불어난 물에 2명이 고립돼 119에 의해 구조됐다.

한편 16일 오후 6시 현재 강수량은 완도 청산도 428㎜를 비롯, 고흥 도양읍 335㎜, 보성 보성읍 236.5㎜, 여수시 거문도 191.5㎜, 진도 하조도 190㎜, 광주 82㎜를 기록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시·군별 누적 강우량 〈15~16일〉

			(단위:㎜)
완도	428		
고흥	335	영광	134
보성	236.5	목포	133
여수	191.5	곡성	129
진도	190	영암	123
순천	180.2	신안	122
장흥	159.5	함평	113.5
해남	157	구례	112.5
강진	155	나주	94
화순	152	장성	94
광양	142.5	담양	93.5
무안	137	광주	82

나원참 〈7310〉 김종두

더 좋은 건축 신문지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재·접착제·테이프

빗길 교통사고 3명 사망 5명 중상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16일 곡성과 장성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이날 오후 3시10분께 곡성군 곡성읍 도림사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운전자 최모·19)와 아반테 승용차(운전자 이모·여)가 충돌해 최군과 아반테에 타고 있던 이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타렉스가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10시께 장성군 남면 국도 1호선에서 박모(39)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이모(32)씨가 운전하던 1.8t 마이티 트럭이 충돌, 박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前 남편 병문안 30대 보상금 2천만원 훔쳐

광주 동부경찰은 16일 병문안을 갔다가 전 남편의 산재 보상금을 훔친 박모(여·33·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9일 전 남편 신모(41)씨가 입원해 있던 광주시 서구 쌍촌동 K정형외과 병실에서 남편이 받은 산업재해 보상금 2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공사장에서 신씨가 발목을 다쳐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병문안을 가장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촌 돌며 농산물 훔친 '부부 도둑'

쌍나팔

○…나주 경찰은 15일 차량을 이용해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를 돌며 고추 등 농산물을 훔쳐온 김모(47·목포시 용해동)씨 부부를 절도혐의로 입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 7월7일 오후 4시께 나주시 남평읍 이모(53)씨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수확해 놓은 꽈리고추 5㎏을 훔치는 등 그동안 3 차례에 걸쳐 12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쳤다는 것.

○…김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나주 모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만난 뒤 목포로 돌아가던 중 수확해 놓은 농산물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들고 왔다"며 선처를 호소.

○…경찰은 그러나 비닐하우스 내에 쌓아놓은 농산물을 훔친 점으로 미뤄 김씨 부부가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쳐왔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中 기술유출' 기아차 前 직원 징역형

수원지법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현대기아차의 차체 조립기술 등을 중국의 C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 기아차 직원 윤모(45)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최모(54)·조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 직원 이모(41)·지모(3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 등 기아차 전직 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직 직원인 이씨 등으로부터 현대기아차의 차체품질 및 생산기술 자료 등을 넘겨받아 중국의 C자동차에 이전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중국 C사로 넘어간 기술과 넘어갈 계획이었던 기술자료가 모두 예정대로 모두 유출됐을 경우 2010년까지 3년간 예상 손실액이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4조7천억원,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2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ec.or.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